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식량 불안과 싸우기 위해 뉴욕주가 헬로프레쉬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한다고 발표

프로그램과 보훈국은 재향군인 및 군인 가족의 식량 불안과 코로나19로 악영향을 받은 기타 뉴욕 주민에게 집중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올해 말까지 20만 회의 식사를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훈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이 세계적인 밀키트 배달 회사인 헬로프레쉬(HelloFresh)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식량 불안정과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헬로프레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뉴욕시의 재향군인, 군인 가족 및 기타 거주자에게 20만 회 이상의 신선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례 없는 시기에 식량 불안을 줄이고 식품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인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합니다.

헬로프레쉬와 뉴욕주 보훈국은 6월에 초기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해 뉴욕시의 가족들에게 현재까지 65,000회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뉴욕 전역 및 전국의 식량 불안을 악화시켰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위대한 기업들이 모든 가족이 굶지 않도록 나선 것을 보았으며,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이 중요한 임무에 대한 헬로프레쉬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헬로프레쉬 미국의 최고경영자 Uwe Vos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로프레쉬는 모든 사람이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식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중에 어려움을 겪는 재향군인과 뉴욕 주민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밀키트를 제공함으로써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주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Black Veterans for Social Justice)과 기아 방지 캠페인(The Campaign Against Hunger, TCAH)의 자원봉사자들이 헬로프레쉬 밀키트를 포장하고 조립합니다. 이 밀키트는 무료인 신선한 고품질의 재료, 레시피 카드 및 과일 바구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향군인, 군요원 및 이들의 가족,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밀키트는 기아 방지 캠페인의 브루클린 본사에서 포장되어 뉴욕시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현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뉴욕시의 개인들에게 분배합니다.

초기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에 이어 헬로프레쉬와 뉴욕주는 브루클린에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향후 4개월 동안 과 식량 불안을 겪는 가족들에게 15만 재향군인회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량 불안은 재향군인, 군 요원 및 그 가족들 사이에서 높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복무한 재향군인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식량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두 배 높다고 보고했으며,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150만 명의 참전 용사들이 음식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당에 온전히 의존하는 가정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59,000명의 재향군인이 자신과 가족의 식사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혜택에 의존하며, 이 숫자는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뉴욕주 보훈국의 **Joel Evans**는 사무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재향군인도 자신이나 가족의 식량 부족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및 재정적 문제로 우리나라의 영웅과 그 가족들이 너무 많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지원하는 Cuomo 주지사와 헬로프레쉬를 칭찬하며, 이 필요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낸 모든 재향군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큰 감사를 보냅니다."

기아 방지 캠페인 상임이사 및 설립자 **Melony Samuel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방지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식량 위기를 겪는 재향군인을 돕기 위해 헬로프레쉬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재향군인들은 이타심으로 우리나라에 봉사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구호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도시와 나라가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때 재향군인들이 영양가가 높은 식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향군인들이 생활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도록 보장하는 이니셔티브를 맡아 주신 헬로프레쉬를 칭찬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의 최고경영자 **Wendy McClin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재향군인,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